

# 1004섬 신안군, '맛의 예술섬' 된다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회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로컬푸드 활용안 등 논의



신안군은 최근 '1004섬 맛의 예술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맛의 예술섬'을 만든다. 신안군은 최근 '1004섬 맛의 예술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강종국 목포대 식품공학과 교수가 주도하고 강형기 충북대 교수, 박종숙 신세계한식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한 10개월 간 연구 과정을 돌아보며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맛의 예술섬 구축을 통한 세계적인 미식도시 실현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신안군의 생태미식도시 기본 방향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추구방향 ▲지산지소 실천 및 식문화 전문인재 육성 ▲신안의 로컬푸드 활용방안 ▲미식 도시 신안의 홍보와 이벤트 등이 논의됐다. 강형기 교수는 "신안군만큼 계절별, 월별 식재

료가 풍부한 곳은 없다"면서 "이를 활용해 사계절 요리를 선보이고 식문화 교육과 전문가 양성을 통해 신안군의 미식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숙 소장은 "신안군 향우들의 추억의 음식을 조사해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정정환경에서 생산되는 사계절 농·수산물 등 먹거리가 풍부하고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신안의 재료를 이용한 식문화 체험 관광지와 맛의 예술섬을 만들겠다"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진도 아리단길 상권 환경 개선

상권 르네상스 공모 선정  
5년간 사업비 60억 투입

진도군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낙후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점 추진하는 이 사업은 선정 후 5년에 걸쳐 6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진도군은 쇠퇴해 가는 원도심인 진도읍 남문로 아리단길 일원 상가를 대상으로 상권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 역량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한다. 상권 환경 개선은 거리 정비와 기반공사, 상설시장 편의시설 개선 등이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거리

브랜드, 프리마켓 운영, 핵심포 육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역량사업은 상인 조직 운영, 인적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진도군은 지역 주민과 상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 활성화 협의체와 상권 활성화 재단을 운영, 지역 상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진도읍 상권, 지역 전문가 등이 협력해 진도읍도심 상권의 옛 명성을 되찾고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며 "현재 추진 중인 진도읍의 다양한 개발 사업 인프라와 연계해 활기가 넘치고 특색 있는 상권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진도군은 5년간 60억원을 들여 원도심인 남문로 아리단길 상권 활성화 사업을 벌인다.

# 무안군,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청년 주거급여 지급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 대상

무안군은 학업과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0대 미만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 사군이 다른 경

우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청년 1인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월 79만737원)이다.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급여



가 지급된다"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 해남군, 안산·안양시에 '김장김치' 나눔

해남배추로 만든 9250kg 전달

해남배추로 만든 명품 김장김치를 수도권 주민에게 전달하는 나눔 행사가 열렸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2일 경기도 안산시와 안양시를 잇달아 찾아 김장김치 3000kg과 6250kg을 각각 전달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매년 수도권에서 열린 해남 배추-김장김치 특판전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열리지 못함에 따라 해남에서 직접 김치를 담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장김치를 만드는 재료비 등 소요 예산은 해남군과 양 시가 50%씩 부담했다. 회원농협과 해남군 여성단체 협의회 등에서 자

원봉사를 통해 김치를 제조했다. 지난 1일 열린 나눔 행사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윤화섭 안산시장, 해남 회원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농수특산물 판로확보 등 적극적인 교류, 협력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안산시는 해남군의 자매결연 도시로, 지난달 열린 해남미남축제의 오프라인 행사로 미남도시락 500개를 전달한 바 있다. 안양시는 호남 및 해남 향우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시 차원의 해남 농수산물 사기 운동이 일어나는 등 해남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은 지난 1일 김장김치 3000kg을 담가 자매결연 도시인 경기 안산시에 전달했다. <해남군 제공>

# 신안서 멸종위기종 '검은목두루미' 발견

신안군은 국내에서 보기 쉽지 않은 검은목두루미 2마리가 압해도 논 습지에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검은목두루미는 신안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이며 월동지로 이동 중 휴식을 위해 잠시 중간 기착한 것으로 추정된다.겨울 월동할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검은목두루미는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부터 시베리아 콜리마천 유역에서 번식하고 남유럽, 아프리카 북동부, 인도 북부, 중국, 한국, 일본에서 월동한다.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겨울 철새다. 10월 하순에서 3월 중순까지 관찰된다. 주로 하구, 논 등 습지에서 서식하며 흑두루미, 재두루미 무리에 섞여 월동하는 경우가 많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천연기념물 제451호로 지정된 보호종이다.



국내에서는 철원, 파주, 천수만, 순천만 등지에서 관찰되며 국내에서 월동하는 개체는 10개체 미만이다. 압해도에서는 멸종위기 I급 황새와 저어새, II급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저어새가 도래해 월동 중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목포해수청 '등대 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3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목포항 이용객과 서남해권 해역을 통항하는 항해자를 대상으로 '등대 등 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다. 목포항 등 서남해의 항로표지 시설은 유인등대 6기를 비롯해 무인등대, 등부표 등 총 719기가 설치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객선, 예인선, 화물선 등의 선박 관련업, 단체, 선박대리점 등 약 33개 선사-

유관기관과 관내 여객선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조사 내용은 목포해수청 관내 항로표지의 활용도, 사고(소동, 유실 등) 복구의 신속성·신규 설치 등 7개 항목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항로표지 서비스 개선·품질 향상 등 해상안전 인프라 구축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